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문

1 개 요

○ **사 업 명 :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

○ **내 용 : 전공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도시재생 아이디어 구상**

○ **참가대상 : 관내 관련 전공 스튜디오 대학(원)생**

※ 관련 전공 : 건축, 도시(교통), 조경, 주거, 실내 디자인 등

○ **운영규모 : 50개팀 정도(지역대학 스튜디오 수업 팀별 참가)**

○ **제안주제 : 동성로 일원 도시재생 아이디어**

※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의 (붙임1) 참고

○ **포 상 : 총 23개**

구 분	상 별	포상수	저작권료	훈 격
계		23		
기 관	우수 기관	1		대구시장상
지도교수	우수 지도교수	2		
수 상 팀	대 상	1	100만원	
	최우수	2	50만원	
	우 수	5	30만원	
	가 작	12	10만원	

※ 참가 규모에 따라 포상 및 저작권료는 변경 될 수 있음

○ **참가혜택**

- 시장상 수여 : 대상 등 20개팀, 우수 기관 1곳, 우수 지도교수 2명
- 작품패널 제작 : 참가팀 패널 제작 지원(제작대행)

2 운영 일정

모집	지도교수 간담회	중간 발표회	최종 발표회
23. 8. 14. ~ 9. 6.	23. 9월 중 (일정 조율)	23. 10월~11월 중 (일정 조율)	23. 12월 중 (일정 조율)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스튜디오 모집('23. 8. 14. ~ 9. 6) : 참가 스튜디오 모집**

○ **지도교수 간담회('23. 9.) : 추진 일정 및 추진시 필요한 사항 논의**

○ **중간발표회('23. 10. ~ 11.) : 스튜디오별 진행상황 공유**

○ **최종발표회('23. 12.) : 결과물 발표를 통한 심사 및 시상**

3 참가 신청

○ **접수기간 : '23. 8. 14.(월) ~ 9. 6.(수)까지**

○ **접수방법**

① 첨부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② 참가신청서 작성(지도교수)

※ 참가팀 명단은 '23. 9. 20.(수)까지 제출

③ 기한 내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제 출 처 : ljw0002@dpi.re.kr**

○ **문의전화 : 053-770-5191**

붙임 1. 2023년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 제안 내용
2. 대상지 현황도
3.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분야별 추진과제

붙임1 **2023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 제안 내용**

Ⅰ 제안배경

- 동성로는 대구 읍성의 동쪽 성벽을 허물고 낸 0.92km의 길로 개화기 때부터 교통의 중심이었던 대구역과 연결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1960년대 이후 동성로는 대구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지만, 2000년대 이후 대구시 곳곳에 별도 상권이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면서 공실이 발생하는 등 침체기에 들어섬
- 최근 들어 동성로 주변지역의 재건축·재개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정주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유입된 인구를 동성로에 끌어들이는 한편, 동성로와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동성로 일원 도시재생 아이디어'** 구상을 제안하고자 함

Ⅱ 계획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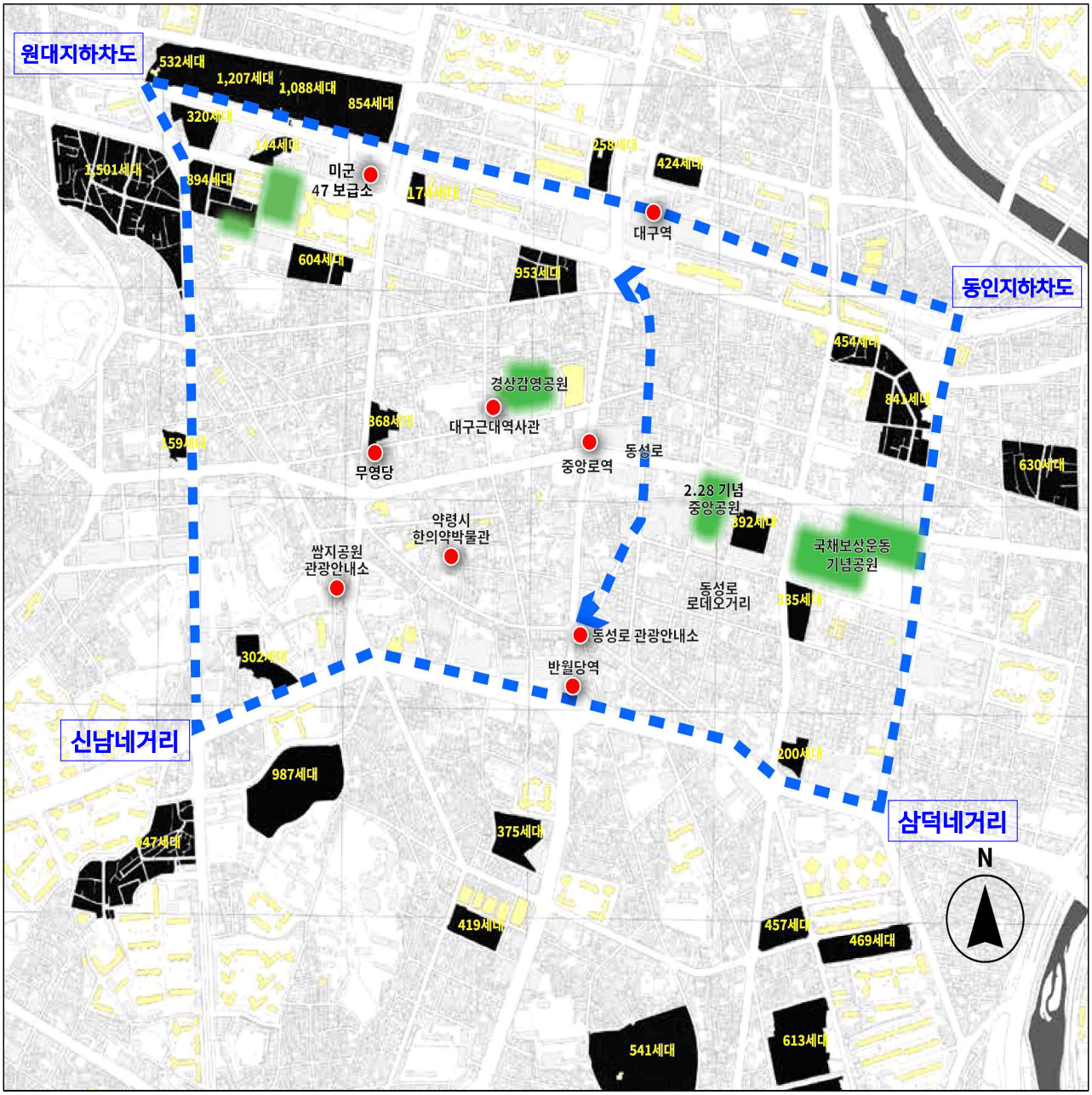
- 기본 지침
  - 대상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할 것
  - 대상지와 그 주변의 도심상황을 고려 할 것
  - 대상지 내 주요시설물 및 자원을 적극 활용 할 것
  - 대상지 주변 주거시설 증가로 인한 도심인구를 대상지 내로 유인 할 것
  - 대상지 상위 계획(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과 부합 할 것

    ※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붙임3) 참고

- 콘텐츠 제안(예시)
  -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 골목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교통 및 공간구조 개편에 관한 아이디어
  - 빈 집·빈 점포 등의 공실 저하를 위한 아이디어
  - 기타 도시재생을 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붙임2 대상지 현황도

■ 대상지 범위 :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동인동·삼덕동 및 북구 고성동·칠성동 일부



붙임3 **[참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보도자료**

대구의 심장, 동성로의 부활
대구광역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 관광특구 지정,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관광 및 골목경제 활성화
-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청년 아지트 만들기 등 청년 유입을 위한 문화 및 체험 위주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
- 민·관 협력 수요응답형 모델로 동성로 부흥 추진
- 상권활성화로 동성로 상징 '대구백화점' 매각 여건 개선 기대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의 명예 회복과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 청년문화 부흥, 골목경제와 상권활성화, 도심공간 구조 개편 등을 통해 대구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40여년 이상 쇼핑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모두 가능한 **대구 대표 상권**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도시 내에 크고 작은 상권들이 형성**되면서 그 명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발달**은 동성로 쇼핑상가들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업·판매시설을 중심으로 공실이 급증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관광·문화·예술·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13개 사업**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활성화 부문>의 경우 **2024년까지 4성로(동·서·남·북성로) 일대 1.16㎢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하여 글로벌 쇼핑 관광지로 브랜딩할 계획이다. 또한 **동성로는 버스킹 성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공연 공간을 조성**해 지역 청년 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타 지역 또는 해외 젊은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대구 대표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7080세대의 추억의 장소인 **舊중앙파출소 건물은 지역의 정체성을 발산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동성로, 야시골목, 로데오 거리 등 **주요 가로마다 트렌디한 이색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방문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성로 청년문화 부흥>을 위해 **도심의 공실을 활용해** 지역 및 경북권 대학(경산·하양·칠곡·구미 등)의 **도심 캠퍼스를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늘리고, 민간 크리에이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 소유의 공간을 젊은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공실에 대해 원스톱으로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청년은 물론 대구를 방문한 해외 및 타 지역 젊은이들이 대구를 즐기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동성로 뮤직 페스타**, **동성로 청년 문화제**, 동성로 클럽데이 투어 등 **청년층에 특화된 다양한 축제·이벤트도 발굴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축제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동성로 일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 축제'가 예정되어있으며, 10월에는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 기간 중 동성로 일대에서 '컬처마켓 in 동성로', 와 청년중심 참여형 종합축제인 '청년주간'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골목경제 및 상권 활성화 부문>에서는 **동성로 상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문기관 컨설팅과 상인회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권 활성화의 세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추진하는 **'중기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거점공간 조성, 브랜드 개발,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구청 및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동성로만의 감성이 있는 **유럽풍 노천 카페 거리를 조성**하는 등 동성로만의 색깔이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동성로의 상징인 대구백화점이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대구백화점의 매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각과정에서 걸림돌이 있다면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 공간구조 개편 부문>에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을** 경찰과 협의하여 **해제**하는 한편, **도심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공연·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러한 **핵심 녹지공간을 잇는 산책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을 거닐면서 대구의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를 중심으로 교동, 향촌동, 종로, 로데오거리 등 **주요 공간들의 특성이 강화**되어 **도심 전체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특색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예술인·버스킹 관계자들과 의견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 수요응답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년도

평가회를 실시하고, 현재 추진중인 '젊음의 거리'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발전된 2차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성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젊음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동성로는 과거 전국의 패션과 문화를 선도했던 대구 젊은이들의 자부심이 새겨진 대구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었다"며, "전자 상거래로 쇼핑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도심 상권 특유의 볼거리 · 놀거리 ·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하여 **동성로를 중심으로 도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